

지각된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으로 조절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최병호(崔秉虎)*

박수원(朴秀原)**

신종호(申宗昊)***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으로 조절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즉, 기존의 또래수용이 공격성을 통해 이후의 또래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비난성향이 조절하는지를 조절된 매개효과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차, 4차,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공격성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의 경우 또래수용이 낮아질수록 다음해의 공격성이 높아지며 이 높아진 공격성이 다시 그 다음해의 또래수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비난성향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는 또래수용이 낮아지더라도 공격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가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청소년에서만 나타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 경험이 이후의 낮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과정을 완충해주는 개인의 인지적(자기비난성향), 행동적(공격성) 특성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교육장면에서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과 공격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또래수용, 공격성, 자기비난성향, 조절된 매개효과

* 제 1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경찰대학 경찰교육연구센터 연구보조원

**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건설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 또래로부터의 수용 여부는 이후의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Crick & Dodge, 1994)과 같은 인지적 과정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은 학급활동 참여와 학업성취를 저해하며(Buhs & Ladd, 2001) 외로움과 우울을 증가시킨다(Boivin, Hymel, & Bukowski, 1995). 반면에,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며(Zimmer-Gembeck, Geiger, & Crick, 2005), 학업성취(Wentzel & Caldwell, 1997), 학급활동 참여, 낮은 외로움 등 다양한 사회적, 학업적 적응을 예측한다(Kingery, Erdley, & Marshall, 2011). 이와 같이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래수용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부정적 발달을 완화시키고, 이들이 사회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또래수용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특성을 가진다(Bukowski & Newcomb, 1984; Hardy, Bukowski, & Sippola, 2002; Ladd, 2006; Parke et al., 1997). 즉 많은 경우 기존의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 경험은 또 다시 이후의 낮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며 반대로 높은 또래수용은 이후의 높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학교장면에서 중요한 과업이 된다. 이러한 개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또래수용 여부가 이후의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는 기제에 대한 탐색이 필수적이다. 이는 이미 또래들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후의 또래관계에서는 수용을 받거나 적어도 수용 받지 못하는 정도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악순환의 기제를 조절해주는 변인에 대한 탐색 역시 필요하다.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이후에도 낮은 또래수용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Hardy et al., 2002; Ladd, 2006; Parke et al., 1997). 본 연구는 또래로부터의 수용이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의 또래수용이 이후의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는 기제로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이 매개효과를 조절해주는 변인으로서 자기비난성향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격성은 또래수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공격성은 낮은 또래수용을 예측하며(Zimmer-Gembeck et al., 2005), 낮은 또래수용은 공격성(e.g., Mayeux & Cillessen, 2008)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한 쪽 측면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낮은 또래수용이 공격성을 통

해 또 다른 낮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는지 하나의 중단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낮은 또래수용이 공격성으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변인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실정이다(Ayduk, Gyurak, & Luerssen, 2008). 선행연구에 의하면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인지적인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행동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Chen, DeWall, Poon, & Chen, 2012; Sandstrom, Cillessen, & Eisenhower, 2007). 이러한 인지적인 평가 중 하나로서, 자기비난성향에 대한 탐색은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의 또래수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개인의 공격성과 자기비난성향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성 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제공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또래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처치를 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래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나 강도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실상황의 풍토가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또래를 수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된다. 또한 또래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주변 청소년들로 하여금 수용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강제로 또래관계를 맺게 하는 등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학급분위기나 풍토를 변화시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며 지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래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상황을 보다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 역시 실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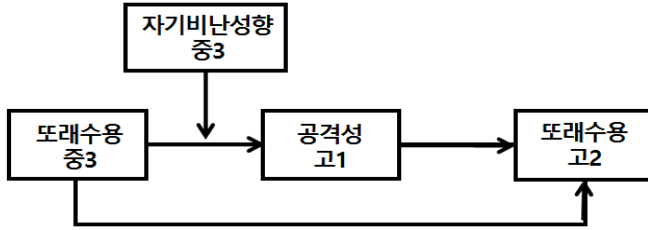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또래수용 간의 중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또래로부터의 낮은 수용경험이 다음해의 공격성을 통해 그 다음해의 또 다른 낮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성향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에게 제공된 객관적 환경보다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이 보다 크고 안정적이라고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Norris & Kaniasty, 1996; Sarason, Sarason, Brock, & Pierce, 1996; Sarason, Sarason, & Pierce, 1990)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수용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지각된 환경으로서 청소년의 지각된 또래수용과 개인적 특성으로서 인지적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비난성향, 행동적 특성으로서 공격성 간의 상호적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탐색에 있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이 달라지는 시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급이라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또래수용 수준 및 공격성, 자기비난성향이 관련을 가진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사하기 때문이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1.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2.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3.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성향에 의해 조절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1. 지각된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영향

공격성은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낮은 또래수용이 이후에 지속적인 낮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는 기제로서 공격성이 역할할 수 있다. 먼저, 또래수용이란, 상호작용하는 자신의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경험을 말하며 따라서 한 명의 또래와 상호적인 관계를 나누는 우정(friendship)과는 구분된다(Bukowski & Hoza, 1989; Furman & Robins, 1985). 즉, 또래로부터 높은 수용을 받더라도 1명의 친구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Parker & Asher, 1989). 반대로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최소 1명 이상의 친구를 가진다(Asher & Parker, 1993). 다음으로 공격성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기대와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부정적인 행동 또는 자극으로서, 그 상대방은 이를 피하고 싶은 경우를 말한다(Bushman & Anderson, 2001; Geen, 2001).

또래 사이에서 낮은 수용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소속에 대한 욕구를 위협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Leary, Twenge, & Quinlivan, 2006). 선행연구들은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을 경험하거나 이를 지각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밝혔다(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Haselager et al., 2002; Ladd, 2006; Mayeux & Cillessen, 2008; Sandstrom & Herlan, 2007). 또한, 반대로 공격성이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낮추는 변인으로 역할하기도 한다(Cillessen & Mayeux, 2004; Pakaslahti & Keltikangas-Jarvinen, 1998; Zimmer-Gembeck et al., 2005). 심지어 낮은 또래수용과 공격성을 보이는 학생들은 낮은

또래수용을 보이지만, 공격성 역시 낮은 학생에 비해, 더 오랫동안 또래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Cillessen, Van IJzendoorn, Van Lieshout, & Hartup, 1992). 종합해보면, 또래로부터의 낮은 수용이 공격성을 높이고 높아진 공격성이 또 다시 또래수용을 낮추는 악순환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낮은 또래수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격성이 낮은 또래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한쪽 측면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또래수용이 공격성을 통해 이후의 또래수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적 기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공격성을 낮추거나, 낮은 공격성은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예측하는(Cillessen & Mayeux, 2004; Mayeux & Cillessen, 2008) 선순환적 관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낮은 또래수용에 초점을 두고 전자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2. 지각된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의 영향

한편, 많은 연구들이 또래수용과 공격성 간의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지만, 수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Chen, DeWall, Poon, & Chen, 2012; Sandstrom, Cillessen, & Eisenhower, 2007; Twenge & Campbell, 2003). 거부, 소외와 같이 수용 받지 못함에 대한 반응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개인차는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인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Ayduk et al., 2008; Kirk-patrick, Waugh, Valencia, & Webster, 2002).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낮은 또래수용에 대한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변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실정이다(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Sandstrom, Cillessen, & Eisenhower, 2003).

또래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똑같이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인지적인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행동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Chen et al., 2012; Sandstrom et al., 2007). 자기비난성향 역시 이러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성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기비난성향은 다양한 심리적 이상과 관련이 있는 인지적 특성으로서, 어떠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귀인의 소재에 있어 개인 내적 소재로 귀인하는 경향성으로(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지각된 무능력에서 기인하고 만성적으로 타인에 의한 비판이나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tt & Zuroff, 1992). 따라서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을 지각하게 될 경우, 이러한 경험의 원인 역시 자신의 탓으로 귀인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귀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에 더욱 치명적인 손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의 손상에 대한 과민한 방어적 기제의 반응으로서 더욱 높은 공격성 증가를 보일 수 있다 (Chen, DeWall, Poon, & Chen, 2012; 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Sandstrom, Cillessen, & Eisenhower, 2007; Sandstrom & Herlan, 2007;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Twenge & Campbell, 2003). Goss, Gilbert와 Allan(1994)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수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자기비난은 수용 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수치심, 타인과의 사회비교에서의 열등감 등 사회적 정체성의 손상과 관련성이 깊은 구인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Goss, Gilbert, & Allan, 1994).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를 자기비난성향이 조절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간접적인 증거들 역시 존재한다. 이는 자기비난성향을 하위요소로 포함하는 변인들과 또래로부터의 수용, 공격성 및 분노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거부민감성과의 깊은 관련성을 통해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기비난성향을 하위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무기력한 귀인성향과 비관주의성향을 가진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man, Smith, & Curtis, 2003). Sandstrom과 Herlan(2007)은 자신에 대한 비관주의적인 인식을 가진 초기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초기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생각해볼 때, 자기비난성향이 낮은 또래수용에 의한 공격성의 증가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서 역할한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낮은 또래수용에 의한 공격성의 발현을 자기비난성향이 조절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분노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Leary 등(2006)에 따르면 분노는 공격성과 동일한 심리적 상태를 공유하며, 자기비난성향은 분노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Boman, Smith, & Curtis, 2003; Gilbert & Miles, 2000; Heyman, Dweck, & Cain, 1992). Gilbert와 Miles(2000)에 의하면, 대인관계에서 주변인으로부터의 낮은 수용 경험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을 보일 경우 높은 분노와 적대감을 보인다. 또한 자기비난성향을 하위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무기력한 귀인성향을 가진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분노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man, Smith, & Curtis, 2003). 자기비난성향이 분노와 높은 관련을 가진다는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수용을 낮게 받을수록,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더욱 높은 정도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음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거부민감성과의 관련성을 통해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거부민감성 모델(Rejection

Sensitivity Model; RS Model)은 소외나 거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Downey & Feldman, 1996). 이는 사회적으로 수용 받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방어적인 걱정과 과도한 민감성(hypervigilance)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수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욱 과잉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모형이다. 즉,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으로 수용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과 적개심을 보이며(Ayduk et. al., 1999) 더욱 방어적으로 반응하고(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언어적, 비언어적 분노의 표출이 높고(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신체적 공격성 수준(Downey, Feldman, & Ayduk, 2000)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공격성 수준(Ayduk, Gyurak, & Luerssen, 2007; Sandstrom, Cillessen, & Eisenhower, 2003;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또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자기비난성향은 본질적으로 지각된 무능력에서 기인하며 만성적으로 타인에 의한 비난이나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tt & Zuroff, 1992). 실제로 김정남(2015)에 의하면 자기비난성향은 거부민감성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수용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자기비난은 수용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수치심, 타인과의 사회비교에서의 열등감 등 거부민감성과 매우 유사한 구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Goss, Gilbert, & Allan, 1994). 즉, 높은 자기비난성향을 가진 개인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또래로부터 받는 수용이 낮아질 때, 자기비난성향이 낮은 개인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의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2010년부터 총 5차년도 까지 데이터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또래수용이 4차년도 공격성을 통해 5차년도 또래수용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성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차(2012년, 중3), 4차(2013년, 고1), 5차(2014년, 고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표집은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통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표본 수는 3차년도 2,259명(남 1,140명, 여 1,119명), 4차년도 2,108명(남 1,075명, 여 1,033명), 5차년도 2,091명(남 1,067명, 여 1,024명)이었다. 또래의 영향이 가장 크며(Chen et. al.,

2011). 우리나라 청소년의 90% 이상이 또래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구본영, 김태호, 김인규, 1999)에 따라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중, 고등학생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상 선정에 있어서 학교급이라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을 고려하였다.

2.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 중 자기비난성향, 또래수용, 공격성의 세 가지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세 변인의 원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변인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비난성향, 공격성과 또래수용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자기비난성향

자기비난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과 관련된 문항 중,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PSY1E06)의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태도를 측정하는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2) 또래수용

또래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3차와 5차의 또래애착 및 교우관계와 관련된 문항 중,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수용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4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의 선택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또래수용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간 협의를 통해 또래수용을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둘째, 기존의 분류인 또래애착 및 교우관계에 포함된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또래수용 예비문항으로 선택된 문항들 중 최종문항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역할하였다. 셋째, 문항 간 상관과 신뢰도(Cronbach's α)를 통해 최종 선택된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또래수용 변인에 사용된 문항은, 또래애착에 대한 문항 중에서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FRN1A01),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FRN1A02), 교우관계에 대한 문항 중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EDU2C01),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EDU2C05)이다. 3차년도 또래수용의 신뢰도는 .75, 5차년도의 경우 .76로 나타났다.

3)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격성 문항 중 다음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PSY1B01),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PSY1B02),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PSY1B03),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PSY1B04)이다. 3차년도 공격성의 신뢰도(Cronbach α)는 .78, 4차년도의 경우 .76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의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옵션(Hayes, 2013)을 활용하였다(<http://afhayes.com/public/docaddendum.pdf>).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의 명명은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공격성에 의한 매개효과(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인 자기비난성향에 의해 조절되는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은 붓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선행연구(Hayes, 2008)의 제안에 따라 붓스트래핑 표본은 5000회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양측검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Hayes(2013)의 PROCESS 옵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붓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을 요구하게 되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속변수인 자기비난성향의 수준($\pm 1SD$)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확인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다(Hayes, 2013, 2015). 셋째, 구조방정식모형의 다집단 분석이나 상호작용변수를 활용한 조절효과의 검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연속변수를 그 수준에 따라 상/하 집단으로 구분 하여 이분 변수로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변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비선형 제약을 통한 상호작용효과 확인의 번거로움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Hayes, 2013, 2015).

IV. 연구 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자기비난성향(3차), 또래수용(3차, 5차) 및 공격성(3차, 4차)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상관은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또래수용은 자기비난성향 및 공격성과 -.12에서 -.21 사이의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또래수용은 5차년도 또래수용과 .42의 상관을 보였고 3차년도 공격성은 4차년도 공격성과 .46의 상관을 보였다. 또래수용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3차년도 또래수용은 3차년도 및 4차년도 공격성과 -.12에서 -.14의 상관을 보였고, 3차년도 또래수용과 3차년도 자기비난성향은 -.21의 상관을 보였다.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26에서 0.37 사이였고, 첨도는 -0.88에서 1.40 사이로 왜도 |2|, 첨도 |4|의 기준을 넘지 않아 측정변인이 정상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5
1. 자기비난성향 3차	-				
2. 공격성 3차	.32	-			
3. 공격성 4차	.18	.46	-		
4. 또래수용 3차	-.21	-.14	-.12	-	
5. 또래수용 5차	-.16	-.13	-.16	.42	-
평균	2.15	2.27	2.05	3.10	3.15
표준편차	0.87	0.64	0.57	0.44	0.38
왜도	0.16	0.01	0.05	-0.26	0.37
첨도	-0.88	-0.16	-0.29	1.40	1.08

주. 모든 상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2.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성향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변인인 기존의 공격성(3차)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또래수용(3차)이 매개변인인 공격성(4차)에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06이었으며 매개변인인 공격성(4차)이 다음해의 또래수용(5차)에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12

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또래수용(3차)이 종속변인인 또래수용(5차)에 미치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41로 나타났다. 모든 경로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 결과 상한과 하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또래수용의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	종속변인: 공격성 4차 [매개변인]				
	R^2	B	SE	β	t
공격성 3차 [통제변인]	.21	0.41	0.02	.45	22.54***
또래수용 3차		0.07	0.03	-.06	2.74**
독립변인	종속변인: 또래수용 5차				
	R^2	B	SE	β	t
공격성 4차 [매개변인]	.19	0.08	0.01	-.12	5.72***
또래수용 3차		0.36	0.02	.41	20.03***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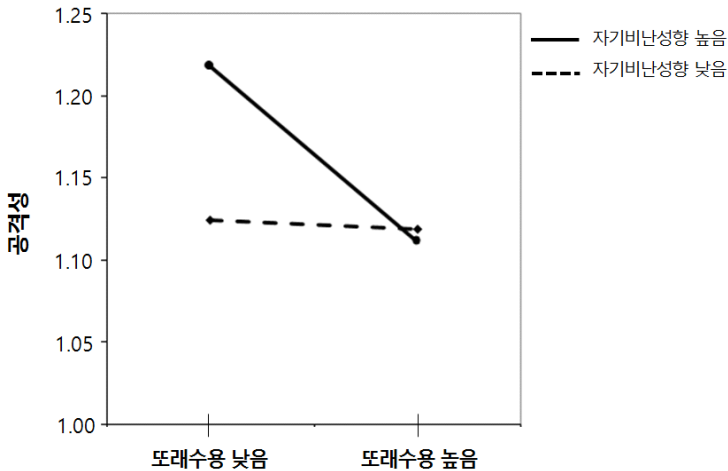
3.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또래수용이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3차년도의 공격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4차년도의 공격성에 또래수용과 자기비난성향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단순회귀선 분석결과, 자기비난성향이 낮을 경우(-1SD) 또래수용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비난성향이 평균 정도일 경우 단순 기울기는 .07, 자기비난성향이 높을 경우(+1SD)에 단순기울기는 .13으로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수용이 낮아질 경우 다음해의 공격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방향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조절변인의 상, 하 값($\pm 1SD$) 값에서 또래수용정도가 다음해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면 [그림 2]과 같다.

<표 3>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독립변인	종속변인: 또래수용 5차									
	1단계					2단계				
	R^2	B	SE	β	t	R^2	B	SE	β	t
공격성 3차 [통제변수]	.21	0.40	0.02	-.44	21.42***	.22	0.39	0.02	-.44	21.44***
또래수용 3차 (A)		0.07	0.03	.05	2.60**		0.07	0.03	.05	2.67**
자기비난성향 3차 (B)		0.02	0.01	-.03	1.56ns		0.02	0.01	-.04	1.71ns
AxB							0.07	0.03	-.05	2.73**

주. ns=non-significant, **= $p < .01$, ***= $p < .001$



[그림 2]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

4.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으로 조절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성향에 의해 조절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분석결과는 <표4>에 나타나있다. 즉, 3차년도와 4차년도 간의 공격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4차년도의 공격성에 또래수용과 자기비난성향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차년도의 공격성이 5차년도의 또래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결과 상한과 하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차년도의 또래수용이 5차년도의 또래수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

의 경우(+1SD)에는 또래수용이 낮아질 경우 다음해의 공격성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공격성이 그 다음해의 또래수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비난성향이 낮은 경우(-1SD)는 그렇지 않은,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기비난성향이 높을 경우(+1SD)의 표준화된 조건부 간접효과는 .01로, 부스트래핑 결과 상한과 하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으로 조절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 변인	종속변인: 공격성 4차 [매개변인]				
	R^2	B	SE	β	t
공격성 3차 [통제변인]	.22	0.40	0.02	.44	21.02***
또래수용 3차(A)		0.07	0.03	-.05	2.52**
자기비난 성향 3차(B)		0.02	0.01	.04	1.73ns
AxB		0.07	0.03	-.05	2.80**
독립 변인	종속변인: 또래수용 5차				
	R^2	B	SE	β	t
공격성 4차 [매개변인]	.19	0.08	0.01	-.12	5.71***
또래수용 3차		0.36	0.02	.41	20.03***

주. ns=non-significant,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자기비난성향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각된 또래수용과 개인적 특성으로서 인지적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비난성향, 행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성 간의 상호적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받는 낮은 수용정도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수용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래로부터의 낮은 수용이 공격성으로 이어지거나 (e.g., Downey et al., 1998; Haselager et al., 2002; Ladd, 2006; Leary et al., 2006; Mayeux & Cillessen, 2008; Sandstrom & Herlan, 2007), 공격성이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낮춘다는(e.g.,

Cillessen & Mayeux, 2004; Pakaslahti & Keltikangas-Jarvinen, 1998; Zimmer-Gembeck et al., 2005) 한 쪽 측면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들이 각각 존재해 왔으나, 이러한 악순환의 체계를 하나의 종단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또래수용이 공격성을 낮추고 이렇게 낮아진 공격성이 또 다른 높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 역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Cillessen & Mayeux, 2004; Mayeux & Cillessen, 2008), 또래수용의 선순환적 관계를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낮은 또래수용에 초점을 두고 전자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이 초점을 둔 사회측정학적 방법(e.g., Coie, Dodge, & Coppotelli, 1982; Cillessen & Mayeux, 2004; Ladd, 2006)으로 측정된 또래수용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각한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또래로부터 수용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낮은 또래수용이 만성화되어 학습된 사회적 무기력을 보일 수 있다(Ciarrochi & Heaven 2008; Goetz & Dweck, 198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적 접근에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가 또래수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공격성을 낮추어주는 처치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정도를 완화시키고, 악순환의 체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격성에 대한 인지, 행동치료의 효과성이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Bennett & Gibbons, 2000).

둘째, 또래수용이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자기비난성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에 한해서 낮은 또래수용이 공격성을 야기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또래로부터의 낮은 수용의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변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비난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는 또래수용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이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한다는 지각이 사회적 정체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하여 높은 수치심, 분노와 함께 과민한 자기 방어적인 기제로서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서 확인한 공격성에 대한 처치와 함께 자기비난성향에 대한 처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낮은 또래수용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귀인 재훈련에 의한 처치의 효과성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Reivich, Gillham, Chaplin, & Seligman, 2013; Seligman et al., 1988)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또래로부터 낮은 수용 지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자는 자기비난성향을 낮추는 것이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현실적인 귀인성향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학생들이 자기비난성향에서 벗어나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파

악하고 해결을 도모하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수용 간의 중단적 관계에 있어서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비난성향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에 한해서 또래수용이 낮아질수록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공격성이 다음해의 또래수용을 낮추는 악순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격성은 또 다시 이후의 또래수용을 낮추는 변인으로 역할하기에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성의 증가는 낮은 또래수용 상황에서 매우 부적응적인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원인을 자신으로 돌리는 자기비난성향에 대한 귀인재훈련을 통해, 이후에 있을 낮은 또래수용에 대한 처치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아이들의 인지적 편향을 변화시키는 교육적 개입을 시도한다면 또래수용이 낮아짐에 의해 발현되는 공격성을 낮춤으로써 다음 해의 또래수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소년들의 자기비난성향에 대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의의를 가진다.

넷째, 환경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었음에도 중학교 3학년 때의 또래수용이 고등학교 2학년의 또래수용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또래수용과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Bukowski & Newcomb, 1984; Coie & Dodge, 1983; Hardy et al., 2002; Ladd, 2006; Parke et al., 1997). 그러나 또래수용이 공격성과 자기비난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또래수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지속적인 안정성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변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즉, 또래수용은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인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개인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래로부터의 수용 받지 못함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았을 때,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이러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다. 청소년들의 행동적 특성으로서 공격성이나 인지적 편향으로서 자기비난성향을 수정하는 교육적 처치는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대해 개입하는 방안에 비해 개인의 통제성이 높고 교육자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은 또래수용이 안정적인 특성을 가졌지만 개인적 특성의 변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기비난성향을 필두로 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이 이후의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지각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행동적 특성이 또 다른 지각된 환경을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중학교 시기 또래로부터의 낮은 수용이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

서 새로운 또래환경인 고등학교에서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또래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들의 경우 공격성이 또래 내 높은 지위를 예측하고 수용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거나 오히려 수용을 낮추거나 또래로부터의 거부를 불리움에도 불구하고(Espelage, Holt, & Henkel, 2003; Sandstrom & Coie, 1999; Vaillancourt & Hymel, 2006), 낮은 또래수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공격성을 보이는 거부 역설(rejection paradox)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DeWall, Twenge, 2013; Reijntjes et al., 2011). 또한 또래로부터의 낮은 수용에 대한 지각은 직접적으로 이후의 낮은 또래수용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공격성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또 다른 낮은 또래수용 불리오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장면에서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자기비난성향과 공격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적 관계를 낮추기 위해 공격성과 자기비난성향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귀인성향으로서 귀인 소재에 초점을 둔 자기비난성향에 더 나아가 귀인 양식의 다른 차원 중 통제소재, 및 안정성 귀인(Weiner, 2000)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한 예로, 개인이 지각하는 통제가능성은 사회적 배제와 공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주요 변인으로 역할한다고 알려져 있다(Warburton et al., 2006). 자기비난성향이 높은 학생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각보다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지각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Chen, DeWall, Poon, & Chen, 2012; Rudolph, 2010). 이러한 가설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또래수용이 실제적 또래수용 수준에 비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지각 수준의 정확도가 어떠한지나 지각 수준의 정확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나 행동, 인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e.g., Cillessen & Bellmore, 1999).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영, 김택호, 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 상담 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정남(2015). 연구논문: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자살사고와의 관계: 자기비난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3), 77-96.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2), 358.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sher, S. R., & Parker, J. G. (1989).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 problems in childhood. In B. H. Schneider, G. Attili, J. Nadel, & R. P. Weissber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5-23). Boston: Klower.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 Ayduk, Ö.,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nnett, D. S., & Gibbons, T. A. (2000). Efficacy of child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for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2(1), 1-15.
-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Boman, P., Smith, D. C., & Curtis, D. (2003). Effects of pessimism and explanatory style on development of anger in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4(1), 80-94.
- Buhs, E. S., & Ladd, G. W. (2001). Peer rejection as antecedent of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 examination of mediating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550-560.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 Bukowski, W. M., & Newcomb, A. F. (1984). Stability and determinants of sociometric status and friendship choi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0(5), 941-952.
- Bushman, B. J., & Anderson, C. A. (2001). Is it time to pull the plug on hostile versus instrumental aggression dichotomy?. *Psychological Review*, 108(1), 273-279.
- Chein, J., Albert, D., O'Brien, L., Uckert, K., & Steinberg, L. (2011). Peers increase adolescent risk taking by enhancing activity in the brain's reward circuitry. *Developmental Science*, 14(2), F1-F10.
- Chen, Z., DeWall, C. N., Poon, K. T., & Chen, E. W. (2012). When destiny hurts: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moderate aggressive responses to ostrac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5), 1029-1036.
- Ciarrochi, J., & Heaven, P. C. (2008). Learned social hopelessness: The role of explanatory style in predicting social suppor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2), 1279-1286.
- Cillessen, A. H., & Bellmore, A. D. (1999). Accuracy of social self-perceptions and peer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5(4), 650-676.
- Cillessen, A. H., Van IJzendoorn, H. W., van Lieshout, C. F., & Hartup, W. W. (1992). Heterogeneity among peer-rejected boys: Subtypes and stabilities. *Child Development*, 63(4), 893-905.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3), 261-282.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5), 783-79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Wall, C.N. (2013).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exclus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eWall, C. N., & Twenge, J. M. (2013). Rejection and aggression: Resolving the paradox. In C. N. DeWall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exclusion*(pp. 113-120).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Espelage, D. L., Holt, M. K., & Henkel, R. R. (2003). Examination of peer-group contextual effects on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1), 205-220.
- Fear, J. M., Champion, J. E., Reeslund, K. L., Forehand, R., Colletti, C., Roberts, L., & Compas, B. E. (2009). Parental depression and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blame and coping respon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5), 762-766.
- Furman, W., & Robbins, P. (1985). What's the point? Issues in the selection of treatment objectives. In B. H.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41-54). New York: Springer.
- Geen, R.G. (2001). *Human Aggression*.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 Gilbert, P., & Miles, J. N. (2000). Sensitivity to Social Put-Down: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shame, social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self-other bla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4), 757-774.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Goetz, T. E., & Dweck, C. S. (1980). Learned helplessness in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2), 246-255.
- Hardy, C. L., Bukowski, W. M., & Sippola, L. K.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peer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level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2(2), 117-142.
- Haselager, G. J., Cillessen, A. H., Van Lieshout, C. F., Riksen-Walraven, J. M. A., & Hartup, W. W. (2002). Heterogeneity among peer-rejected boys across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of 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8(3), 446-456.
- Hayes, A. F. (200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 1-22
- Hymel, S., Freigang, R., Franke, S., Both, L., Bream, L., & Borys, S. (1983). *Children's attributions for social situations: Variations as a function of social status and self-perception variables*. In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innipeg, Manitoba.
- Kingery, J. N., Erdley, C. A., & Marshall, K. C. (2011).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across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7(3), 215-243.
- Kirkpatrick, L. A., Waugh, C. E., Valencia, A., & Webster, G. D. (2002). The functional domain specificity of self-esteem and the differential prediction of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756-767.
- Ladd, G. W. (2006). Peer rejection, aggressive or withdrawn behavior,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rom ages 5 to 12: An examination of four predictive models. *Child Development*, 77(4), 822-846.
- LaFontana, K. M., & Cillessen, A. H. (2002). Children's perceptions of popular and unpopular peers: a multimethod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635-647.
-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Lynch, R. J., Kistner, J. A., Stephens, H. F., & David-Ferdon, C. (2016). Positively biased self-perceptions of peer acceptance and subtypes of aggression in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42(1), 82-96.
- Mayeux, L., & Cillessen, A. H. (2008). It's not just being Popular, it's knowing it, too: The role of self-perceptions of statu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peer status and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7(4), 871-888.
- Norris, F. H., & Kaniasty, K. (1996). Received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imes of stress: A test of the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deterre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498-511.
- Pakaslahti, L., & Keltikangas-Järvinen, L. (1998). Types of aggressive behavior among aggressive-preferred, aggressive non-preferred, non-aggressive preferred and non-aggressive non-preferred 14-year-old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6), 821-828.
- Parke, R. D., O'Neil, R., Spitzer, S., Isley, S., Welsh, M., Wang, S., ... & Cupp, R. (1997).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sociometric stability and the behavioral correlates of children's social acceptance. *Merrill-Palmer Quarterly* 43(4) 635-662.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Reivich, K., Gillham, J. E., Chaplin, T. M., & Seligman, M. E. (2013). From helplessness to optimism: The role of resilience in treating and preventing depression in youth. In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 201-214). Springer US.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Volume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571-645). Hoboken, NJ: WILEY.
- Rudolph, K. D. (2010). Implicit theories of peer relationships. *Social Development*, 19(1), 113-129.
- Sandstrom, M. J., Cillessen, A. H., & Eisenhower, A. (2003). Children's appraisal of peer rejection experiences: Impact on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2(4), 530-550.
- Sandstrom, M. J., & Coie, J. D. (199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eer rejection: Mechanisms of stability and change. *Child Development*, 70(4), 955-966.

- Sandstrom, M. J., & Herlan, R. D. (2007). Threatened egotism or confirmed inadequacy? How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status influence aggressive behavior toward pe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2), 240-267.
-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 (1990). Traditional views of social support and their impact on assessment.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pp. 9-25).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Sarason, I. G., Sarason, B. R., Brock, D. M., & Pierce, G. R. (1996). Social support: Current status, current issues. *Stress and Emotion: Anxiety, Anger, and Curiosity, 16*, 3-27.
- Seligman, M. E., Castellon, C., Cacciola, J., Schulman, P., Luborsky, L., Ollove, M., & Downing, R. (1988). Explanatory style change during cognitive therapy for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1), 13-18.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Vaillancourt, T., & Hymel, S. (2006).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The moderating roles of sex and peer-valued characteristics. *Aggressive Behavior, 32*(4), 396-408.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220.
- Weiner, B. (2000).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theories of motivation from an attribution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2*(1), 1-14.
- Whisman, M. A., & McClelland, G. H. (2005). Designing,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and moderator effects in family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111-120.
- Zimmer-Gembeck, M. J., Geiger, T. C., & Crick, N. R. (2005).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prosocial behavior, and peer relations gender moderation and bidirectional association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4), 421-452.

* 논문접수 2016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6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7월 22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7일

* 최병호: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경찰대학 경찰교육연구센터 연구보조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hol216@snu.ac.kr

* 박수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뇌과학으로 이학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park@sejong.ac.kr

* 신종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shin21@sn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Aggression and Self-blame Style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eer Acceptances: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Choi, Boungho*
Park, Soowon**
Shin, Jo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ggression and self-blame style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eer acceptances. It suggests that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prior peer acceptance, through aggression, on posterior peer acceptance, depending on the levels of self-blame style. This study analyzed the 3rd-5th waves of the 7th grade cohort of the Korea Youth and Children Panel Survey dataset,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ults showed that after accounting for existing aggression, decreasing peer acceptance predicted increasing aggression next year, which then predicted decreasing peer acceptance again year after the next, only for adolescents with high self-blame style. On the other hand, for adolescents with low self-blame styl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eer acceptance and aggression. It is meaningful in that we identified the role of individual's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at can buffer the vicarious cycle of low peer acceptance and aggression. Therefore, we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self-bale style and aggressions, when the interventions on the low accepted adolescents are practiced.

Key words: peer acceptance, aggression, self-blame style, moderated mediation

* First author, Master's degre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search assistant, Police Education & Learning Research Center,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ejo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